



오늘의 날씨와 생활

4월 17일 수요일 음 3월 9일 (1물)

건강&생활

기상정보



맑음

제주는 맑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1~13℃, 낮 최고기온은 18~20℃로 예상된다. 미세먼지가 있겠으나 환기를 자제하고 외출할 때는 기압적 마스크를 써야겠다.

Table with precipitation forecasts for Jeju, Seongsan, Goseong, and Seogwipo.

Table with sunrise/sunset, moonrise/moonset, and day/night length information.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맑음 13/20℃, 모레 구름맑음 14/23℃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월드뉴스

‘두리안 수출 1위’ 태국 중시장 사수 총력

“저품질 수출 금지” 결정

‘두리안 수출 대국’ 태국이 베트남의 강력한 도전에 맞서 중국 시장을 사수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16일 네이션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태국은 최고급 두리안만 공급하기 위해 저품질 상품 수출 금지 법안을 제정하기로 했다.

세타 타위신 총리는 농업조합부에 달 억억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두리안을 수확해 판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상품 표준을 도입하라고 지시했다.

과육 건조 중량 비율에 따라 등급이 매겨지고, 가공·포장업체들은 관련 인증을 사용해야 한다.

두리안은 태국 핵심 수출품 중 하나다.



태국 노점에서 판매 중인 두리안. 연합뉴스

지난해 수출은 1200억(4조6000억원) 규모였다. 작년 두리안 출하량 90만t 중 30만t은 국내에 공급되고, 나머지 60만t은 대부분 중국으로 수출됐다.

두리안이 큰 인기를 끌면서 올해 중국 시장 수요는 100만t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폭발적으로 성장 중인 중국 두리안 시장은 향후 현재 수준의 15배인 1500만t 규모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소 영

하버드대학교대학·브라운대학병원 정신과 교수

최근에 의뢰받은 환자가 있다. 구순의 여성 환자가 갑자기 생긴 망상으로 정신과 진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망상이란 사실과 논리에 맞지 않는 잘못된 믿음이나 생각을 말한다. 허황된 망상은 문제가 되고 현실에 가까운 망상은 덜 문제가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속으로 자신이 외계인이라 굳게 믿고 있더라도 지구에 있는 동안 정체를 숨기고 잘 지내야겠다고 생각하며 평범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면, 누군가가 내 물건을 훔친다고 생각해 죄 없는 타인을 받았...

내가 선택한 싸움

로 추궁하고 심지어 해하려 한다면? 절대적으로 후자가 정신과 치료와 법적 보호가 필요한 경우다.

환자는 단정한 차림에 환한 미소를 띤 젊잖은 할머니였다. 얼마 전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고 있는, 겉보기로는 별문제가 보이지 않는 환자였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좋을지 모르겠네. 내 아들하고 주치의는 내 정신이 이상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야” 하며 꺼낸 이야기는 살고 있는 커다란 집의 위층에 누군가가 숨어들어 살고 있다는 것이었다. 아들이 집안에 카메라를 설치해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했지만 환자는 자신의 망상에 추호의 의심도 없어 보였다. 위층에 누가 산다는 게 무섭지 않느냐고 하니 처음엔 무서웠지만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어 이제는 괜찮다고 생각해 죄 없는 타인을 받았...

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언제 꼭 다시 보고 싶다고 하니 흔쾌히 석 달 후 다시 오겠다며 떠나셨다.

다음 날 환자의 주치의로부터 연락이 왔다. 멀쩡하던 분이 망상 증상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신다는 거였다. 가족들도 난리가 났다. 주치의나 가족의 걱정은 나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하지만 당장 망상으로 인해 일어나는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치료를 강제할 수는 없다. 위층에 누가 산다고 믿고 있을 뿐, 잘 지내는 분을 정신과 폐쇄 병동에 강제로 입원시킬 것인가? 입원시킨다면 언제까지? 그뿐 아니라, 조현병과 같은 정신증에 효과가 있는 약들이 이런 경우에는 큰 효과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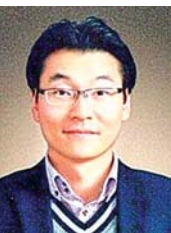
의사마다 치료 전략이 다르겠지만 내가 경험으로 터득한 것은, 이럴 때는 오히려 환자가 하는 이야기

를 들어주고 긍정도 부정도 아닌 입장을 취하며 관계를 잘 맺는 게 더 중요하다는 점이다. 그래야 언제가 정말 어떠한 의학적 또는 법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환자가 나에게 돌아온다. 영어 표현 중에 “Pick your battles.”라는 말이 있다. 싸움을 골라라, 즉, 중요하고 승산이 있는 싸움에 전력을 소모하라는 말이다. 지금은 환자와 내 말이 맞네, 네 말이 맞네, 싸울 때가 아니라 “다시 오실 거죠?”에 긍정적인 대답을 듣는 게 더 중요했던 것이다. 앞으로 이 환자의 망상이 저절로 사라질지, 더 심해질지, 아니면 다른 치매 증상이 나타날지는 모르겠다. 다만 환자가 겁을 먹고 치료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이 의사를 만나면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 내가 의지해도 되는 사람이다, 라는 믿음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열린마당

안심 제주, 제주해안경비단이 함께합니다

청렴의 길



강 인 홍 제주해안경비단 1경비대

며칠 전 해안도로 도보 순찰 중 도민 한 분이 “해양경찰이세요?”라며 말을 건넸다. “해양경찰이 아니라 제주경찰청에 소속된 제주해안경비단 경찰입니다”라고 답하자 웃으면서 “최근에 SAFE JEJU 제주해안경비단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조끼를 입으시고 순찰하는 분들을 자주 본다”고 인사하면서 가셨다.

제주해안경비단에서 약 2개월 근무를 해보니 제주해안경계를 제주경찰청에서 하고 있음을 모르는 도민들이 적지 않은 것 같다. 이에 제주해안경비단에 대해 소개를 해볼까 한다. 제주해안경비단은 제주도의 해안

을 책임지고 방어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제주경찰청 소속 경찰 작전부대로 2000년 1월 창설됐다.

당시 전투경찰대가 담당하던 해안경계와 통합방위작전 수행 임무는 2024년 현재 지능형 해안경계시스템이라는 해안경계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전원 경찰관으로 이뤄진 경찰부대에서 담당하고 있다.

최근 해안경비단에서는 도민 체감 안전도 향상을 위한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가(가시적) 자(자율적) 순찰 활동이 대표적인 예이다. 가자 순찰이란 제복 입은 경찰이 근무하는 가시적 활동과 경찰부대 팀별로 도민과 접점이 많은 장소를 자율적으로 선정, 순찰하면서 다양한 의견도 듣고 민원도 처리하는 의미의 순찰이다.

앞으로도 제주해안경비단은 변화하는 작전환경에 대비한 작전 수행 및 상황 조치 능력을 배양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재산 보호를 위한 순찰도 지속하는 등 안심 제주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



오 시 열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마을만들기

‘물이 깊으면 고요하다’라는 옛말이 있다. 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소란과 혼란 없이 내면의 깊이와 진정함의 가치를 일깨워 준다. 공직자에게 겉으로 드러내는 행동만 큼이나 내면의 깊이를 청렴함과 고결함이 진정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깊은 물처럼 조용하고 흔들림 없이 자신의 본분에 충실한 공직자는 주변의 유혹에 휩쓸리지 않으며 그 깊이를 통해 자신의 청렴을 유지한다. 우리의 일상은 개인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그 선택이

쉽지 않을 수 있으며 당장의 이익을 포기해야 하는 어려움을 수반하기도 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행해져 할 공직자의 청렴은 선택이 아닌 필수 덕목으로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깊이와 진실함이 더해져 자연스레 존경과 신뢰를 얻게 된다.

하지만 청렴의 길은 늘 시험과 유혹의 연속이다. 때 순간 맛닥뜨리는 도전과 유혹 속에서 단순히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넘어서 내면의 청렴을 다질 수 있는 지속적인 자기 계발이 필요하다. 공직자의 진정한 가치는 화려한 성과나 대중의 주목을 받는 순간에 빛나기도 하겠지만 오히려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끄는 리더가 되어 줄 수 있는 깊고 견고한 노력에 더욱 빛난다고 할 수 있다.

청렴이 길이 쉽지는 않지만 그 가치와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음을 다시금 새겨보며 오늘도 나는 청렴의 길로 발걸음을 내딛어 본다.

한리일보 제주 대표신문 정보: 발행인·인쇄인·편집인 김한옥 편집국장 고대로,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기사번호 750-2214 / FAX 752-9790

제주한라농원 감귤묘목 생산 전문업체. 최신품 국내육성. 감귤묘목 생산 전문업체. 전망 좋은 신품종 감귤 만감류등 각종묘목을 선별하여 최상의 상품을 공급해 드립니다.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쿨고리! 매달기작업 일손을 줄이고 싶으신 분! 더울 때 작업을 줄이고 싶으신 분! 한번 매달면 몇 년이 속편한, 다인'쿨고리'가 있습니다!